



이 시 벡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회장

7월 11일 세계인구의 날을 맞아

21세기 새로운 가족보건 향상을 위한

IPPF의 역점 5As 사업

지 금까지 각국의 정부와 인구관련 단체의 부단한 노력으로 급격히 팽창해 오던 인구는 많이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인구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인구는 약 62억 명이며 매년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보다 많은 8,0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약 30여 개의 국가는 안정 인구수준에 진입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는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계속 심각해 질 것으로 유엔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역시 가족계획 사업이 양적으로 성공한 국가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인구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전세계 180여 개국의 회원단체와 함께 인구/가족계획 /생식보건 사업을 민간단체 수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가족보건복지연맹(IPPF)은 2002년 뉴델리에서 21세기의 새로운 사업 개발을 결의하고 5As로 표현되는 전략 사업을 수립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사업 (Adolescents/Young People)

오늘날 청소년은 어느때보다도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즉 전세계 인구의 4명 중 1명이 10-24세 사이의 청소년이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구의 약 64%가 25세 이하이며 아프리카 지역은 10-24세 사이의 청소년이 4억 5,3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31%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큰 청소년 집단은 그들의 성/생식보건 및 복지에 대한 결정과 선택에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리대상 집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들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부모/교사/종교/지역사회지도자/기타 개인 또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를 형성,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 자신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들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2. 성병 및 에이즈 (HIV/AIDS)

2002년도에 5백만 명의 HIV감염이 발생하고 HIV/AIDS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4,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HIV/AIDS의 확산은 “빈곤, 교육부재, 여성권리 침해, 문맹, 자기보호를 위한 정보

및 물자의 부족, 여러가지 형태의 성착취 등에 기인하므로 인권 특히 여성의 권리 향상이 HIV/AIDS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HIV/AIDS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염된 사람이나 직접 영향을 받고 있는 가족들의 관리 및 치료를 도와주고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해 다양한 계층과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개발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3. 인공임신중절 (Abortion)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매년 약 60만 명의 여성들이 임신관련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매년 8만 명, 매일 219명, 매시간 9명이 불안정한 인공임신중절로 사망하고 있다. 매년 2,000만 건 이상의 불안정한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높은 모성사망을 가져 온다. 불안정한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사망과 손상은, 특히 청소년, 빈곤층 그리고 소외된 여성 계층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적극 홍보해야 하며 불안정한 인공임신중절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4. 보다 향상된 가족보건 서비스 (Access)

세계여성들은 매 1분마다 1명씩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사망하고 있다. 모성사망이 선진국에서는 평균 10만 명당 21명, 저개발국에서는 440명,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870명까지 죽고 있다. 이외에도 15세 - 19세 사이의 소녀들이 결혼하는 것은 선진국의 6%에 비하여 저개발국에서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20세 이전의 여성들은 출산할 때 대부

분 임신기간 중 산전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높은 모성 사망률과 영아 사망률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성적 활동기에 접어든 청소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각종 가족보건에 관한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빈곤층, 소외계층을 포함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생식보건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의료 서비스 등을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5. 사회적 변화를 리드하는 전문 홍보활동 (Advocacy)

IPPF의 새로운 전략적 초점은 사실에 입각한 홍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보는 위의 4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반면에 별도의 성/생식보건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 홍보는 IPPF의 전략적 계획과 통합되기도 하고 또는 지원해 주기도 한다. 이 홍보활동의 가장 근본은 인간적인 권리와 양성평등을 핵심으로 하는 가치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IPPF는 물론 세계 각국의 회원협회는 사회적 변화를 리드하는 단체로 새롭게 태어나길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IPPF는 성/생식보건에 대한 권리를 증진, 실현하기 위해 정책 및 입법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Donor, 정책결정자 및 일반 대중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지원과 책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성/생식보건 사업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전문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PPFK**